

“구제역 아픔, 더 이상 없기를 기원”

아름다운동행, 피해농가 초·중·고·대학생 49명에게 장학금 5000만원 수여

잊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종교인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피해 당사자들을 보듬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해 연말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구제역 피해 농가 자녀들을 초청해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모두 5000만원의 지원금을 전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초등학생을 대표해 참석한 3명에게 장학금을 전한 이사장 자승스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달식 없이 드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회의 관심을 재차 각성시키고 지속적인 후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초청하게 됐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사장 자승스님은 “더 이상 아픔이 없기를 기원하며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를 위한 장학금은 이사장 자승스님의 끊임없는 관심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구제역 방역 중 순직한 공무원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한 데 이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기금을 모연했고, 4개월 동안의 모금을 통해 서울 도선사, 봉은사, 경성대 법

정대 학생회의 지정기탁과 네이버 해피빈 온라인 모금으로 7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 임직원들도 동참해 모두 50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지난 6월 장학금 지원사업 실시를 공고하고 접수한 결과, 초등학생 18명, 중·고교생 21명, 대학생 10명 등 모두 49명이 선정돼 이번에 장학금

“마음으로도 큰 도움 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학부모 감사 뜻 표명

을 수여하게 됐다. 이날 초등학생은 50만원, 중·고교생은 100만원, 대학생에게는 200만원의 장학금이 각각 전달됐다.

학교수업으로 고등학생 아들 대신 장학금을 받은 아버지 강태구(43, 양양군 손양면)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큰 도움이 됐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재차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종단의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은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구제역 피해 농가 대학생과 고등학생, 초등학생을 대표해 참석한 3명에게 장학금을 전하면서 “전달식 없이 드러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회의 관심을 재차 각성시키고 지속적인 후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초청하게 됐으니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현장에서

아이들 교회 보내지 말라는 목사

한 목사가 책을 냈다. 제목은 <우리 아이 절대 교회 보내지 마라>다. 이 목사에 따르면 교회가 “아이의 창의력을 죽이고 자존감을 무시한다”는 것. 책에는 아이들이 교회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조목 조목 밝혀져 있다. 첫째, 역사의식이 제로가 된다. 둘째,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셋째, 이종인 격자가 되기 십상이다. 넷째, 종교 바보가 따로 없다. 다섯째, 일요일에 아이들이 좀 쉬고 싶다. 여섯째, 교회는 죄인 양성소다. 일곱째, 남을 배척하고 경쟁력에서도 뒤쳐진다 등등...



하정은 기자 tomato77@ibulgyo.com

신도들의 무분별한 행동, 또한 일부 기독교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 목사의 절규에 가까운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오죽했으면 목사 신분으로 사회적인 지위와 인간관계망 때문에 자신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야 한다면, 아이들 만이라도 교회에 보내지 말길 권유했을까. 동료목사의 추천사도 눈길을 끈다. “교회가 예수를 이상화 놓음 하던 시대를 지나, 예수를 상쯤

로 팔아먹는 시대까지 예수는 종교사업의 먹잇감이 되었을 뿐이다. ...부모나 기성세대의 영향력으로 왜곡된 인간상을 조작하지 말자. 다양한 가치체계를 경험하고 섭렵하면서도 주체적인 인간으로 자기철학과 세계관을 세우게 하자.”

얼마 전 개신교에서 설립한 한 학교 교사는 공개 심포지엄에서 교내 예배 자율화를 주장하면서 억지로 예배를 해야 하는 아이들의 정신적 압박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아이들 중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사찰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지만, 한편으론 다들 어렵다. 수적으로는 적더라도, 절에 억지로 끌려온 아이들이나, 절에 와서 이상승배를 세뇌받은 아이들이 없으니 말이다.

종단상징 서체 필요하지 않나

종책특보단 정례회의...종책 추진상황 점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특별보좌관(이하 종책특보단)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종책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수립했다.

불교문화콘텐츠특별법 제정사업과 미디어가람구축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법제스님은 “사찰안 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오는 9월께 디자인에 대한 표준 매뉴얼 작업을 마칠 계획이지만 조계종을 대표하는 ‘서체’를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단 서체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부실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추가로 구한 뒤 종단 서체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해외특별교구특별보좌관인 박인택은 첫 번째 해외특별교구가 될 북미특

별교구 설립 진행과정과 더불어 미주중부승가위원회의 미주중부승가별도 설치 요청 등 해외특별교구 설치 등에 대해 보고했다. 신도사포교 특별 허승은 위례신도시 내 종교부지의 분양을 협의양도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산정보특별법 제정사업은 조계종 통합 전산망 구축사업과 중앙종무기관 및 교구본사 VPN(가상사설망) 구축사업 등 종단전산정보화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관련업체와 추진 중인 협의진행내용을 보고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특별단회의를 통해서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중요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말은 소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종회 앞두고 종법 개정안 점검

종책모임 화엄회·법화회, 의미 있는 워크숍

종책모임 화엄회와 법화회가 오는 9월 임시종양총회 개최에 앞서 종법 개정안을 미리 점검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워크숍을 마련했다. 종책모임 화엄회(회장 성직스님)와 법화회(회장 정남스님)는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종헌종법 제도개선 방안 논의 워크숍’을 열고, 중앙종회 종헌종법제정특별위원회가 오는 9월 임시종양총회 상정을 목표로 마련 중인 종법 제·개정안을 미리 논의했다.

화엄회 회장 성직스님은 “종회에 앞서 종책모임이 한자리에 모여 종법 개정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다른 종책모임도 각자 논의의 장을 미리 마련한다면 종단과 불교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화회와 법화회 소속 중앙종회 의원 20여 명은 이날 워크숍을 통해 종헌종법제정특별위원회가 논의

의한 ‘법규위원회법’과 ‘호계원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모임의 입장을 수립했다. 또한 화엄회와 법화회는 특위 소위원회가 다른 종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대로 1~2차례의 워크숍을 추가로 열어 종법 개정안을 점검하기로 결의했다.

박인택 기자

선재스님, 자비기금 1000만원 전달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선재스님(사진)이 불이상 수상금 1000만원을 자비나눔기금과 국제개발기금으로 쾌척했다. 선재스님은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26회 불이상 수상금 가운데 절반인 1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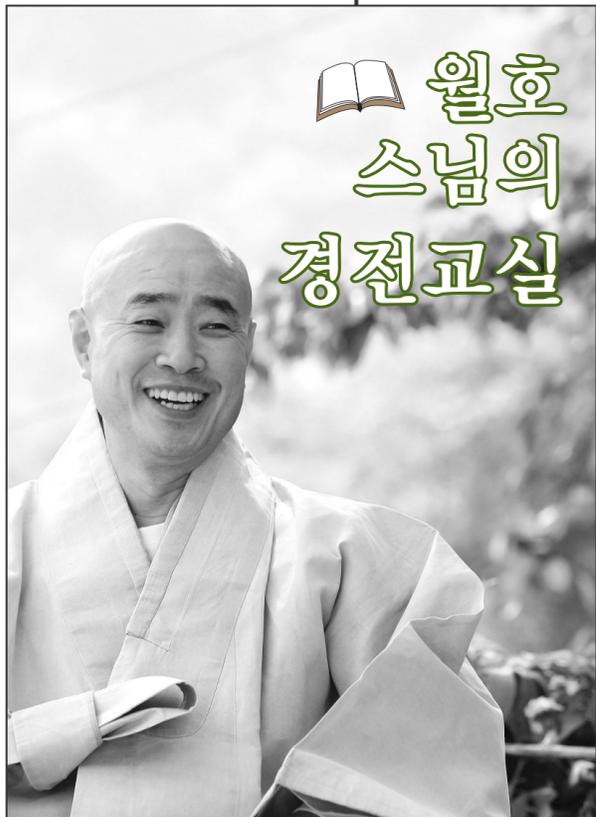


내게 됐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스님은 “시상금을 자비나눔기금으로 흔쾌히 보시해 주 감사하다”

며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사찰음식을 통한 불교포교에도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재스님은 지난 5월 여성 재가불자 모임인 ‘불이회’로부터 제26회 불이상과 상금 2000만원을 수상했다.

박인택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수아사리 월호스님의 직장을 통해 경전의 참뜻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월호스님의 경전교실

“모든 보시 가운데 법보시가 으뜸이요 모든 맛 가운데 법의 맛이 으뜸이다”

개강 : 8월 18일(목) · 19일(금)

천수경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금강경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법화경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육조단경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각 강좌 20주과정, 10주 단위로 등록
강의시간 : 90분(매 강좌당)
동참금 : 강좌당 10주에 9만원(교재별도)
신한은행 110-247-856253(이동준)
4강좌 전체 수강시 30만원(분납가능)

월호스님의 경전교실 안국동로터리(3호선 안국역 6번출구 3분,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도보 10분)

다음카페 '행불' http://cafe.daum.net/kooksaam

장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번2지 동일빌딩 6층(조계종 전법회관 옆) ☎ (02)732-9500, 734-7878 행불선원 (031)631-5116